

다카사고초와 기타마에부네(北前船)

에도 시대(1603~1867) 중반, 화물선은 세토 내해를 기점으로 혼슈와 규슈를 가르는 간몬 해협을 지나, 태평양의 거센 조류를 피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 연안을 오르는 항로를 이용해 오사카에서 홋카이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 항로를 지나는 기타마에부네(北前船, 북쪽으로 향하는 배)의 수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간사이 지방에서 태평양 연안의 에도(현재의 도쿄)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과는 달리, 갈 때와 돌아올 때도 모두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에도로 가는 선박이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수익이 한정적이었던 반면, 기타마에부네는 많은 항구에 들러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배의 상인들은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고, 싸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사들여 다음 기항지에서 팔았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은 기타마에부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역 무역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은 세토 내해의 하리마탄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항지로서 요긴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 항로의 기점인 오사카까지 접근성도 좋아, 많은 선주와 상선원이 다카사고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카사고 지역 출신 사업가인 구라쿠 마쓰에몬(1741~1812)이 발명한 마쓰에몬 범포는 당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쓰에몬 범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갈대나 가벼운 무명으로 만들어진 돛보다 훨씬 튼튼하고 유연했기 때문에, 범선의 신뢰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일본 국내 무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다카사고 지역에서는 많은 건축물이 일본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